



**이영자**  
제42기 사법연수생  
언론중재위원회 대체실무수습 수료

# 언론중재와의 만남



대부분의 연수생들은 변호사사무실로 변호사 실무수습을 나가지만 나는 공공기관에서 변호사의 역할과, 언론으로 인한 피해구제책인 정정보도 등의 제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대체실무수습으로 언론중재위원회를 선택했다. 이렇게 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사팀에서 6~7월 두 달간 서울 제5중재부에 소속되어 조사관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되었다.

위원회에서의 실무수습의 목표는 조사관 업무 체험을 통해 언론조정·중재의 실무 과정을 숙지하고, 나아가 대체적 분쟁해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앞으로의 법률가로서 역할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어서 조사관으로서의 사건처리 외에도 각 부의 조사관님들로부터 언론중재법 및 관련 법규, 침해유형별 사례 소개, 손해배상청구 금액산정, 포털 및 중재사건 실무 등을 개별 주제로 하여 일주일씩 교육을 받았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심리에서 필요한 배경 지식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6월 4일과 5일에는 “효율적인 조정·중재기법 및 제도 운용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중재위원 연수가 열렸는데, 나는 위원장님의 배려로 참여하게 되었다. 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정과 중재가 이루어지는지 위원회 업무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모두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이곳에서 실무수습을 하며 얻은 최고의 혜택은 서울 7개 중재부의 조정심리를 모두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다. 나는 위원회에서 수습을 마치면 검찰을 거쳐 법원에서 실무수습을 받는다. 특히 법원 실무수습에는 조정심리 과정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심리를 참관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이 매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여러 중재부의 심리를 참관하면서 든 생각을 종합해 보면, 조정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입장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 주장을 모두 들어보고 서로의 차이를 전달하여 이해시키고, 어느 정도 판단이 섰더라도 심리 중에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을 보이면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그 당사자가 더 당당한 자세로 자신의 의견만 내세워 오히려 합의 가능성을 사라지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청인은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말할 기회를 원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말할 시간을 주고, 그렇게 말하다 보면 화해가 쉽게 성립되기도 한다. 꼭 정정·반론보도, 손해배상이 아니더라도 사과 정도는 해주기를 바라기도 하는데, 공개적으로 사과보도를 명할 수는 없고 피신청인인 언론사측도 신뢰가 손상될 것을 염려하여 잘못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법리적인 접근도 필요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를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며, 당사자들의 주장에 합리적이지 못한 점이 있으면 설명하고 설득하는 법, 심리 중에 한쪽 당사자를 내보내고 남은 당사자를 설득하는 법,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너무 자신만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게 하는 법 등 다양한 조정기법을 배웠다. 그리고 위원회에 신청되는 사건이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어 심리를 잘 진행하려면 여러 분야의 지식을 쌓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많은 심리를 참관하다보니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겼는데, 장진훈 중재부장님과 김정탁 중재위원님과과의 간담은 그런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벌써 2달이라는 실무수습기간이 끝나가고 있어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크다. 하지만 위원회에서 쌓은 경험은 앞으로 신뢰를 주는 법률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며,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신 위원장님, 사무총장님, 심리참관을 허락해주신 중재위원님들, 그리고 위원회 직원분들, 특히 실무수습기간 동안 좀 더 알찬 교육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신 서울 제5중재부장님과 위원님들 및 조사팀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